

특허청, 이차전지 경쟁력 강화를 위한 현장소통 나서

- (주)SK온 현장방문 및 이차전지 특허 경쟁력 강화를 위한 간담회 개최 -

특허청(청장 김완기)은 2. 6.(목) 14시 이차전지 분야 주요 기업인 SK온의 대전 배터리 연구원(대전시 유성구)을 방문하여 현장소통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방문은 SK온의 이차전지 연구개발 현장을 찾아 최신 기술동향을 파악하고, 국가첨단전략기술인 이차전지의 특허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산업계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차전지 산업은 최근 전기차 수요 둔화, 미국의 새 정부 출범 등으로 국내외 산업환경의 큰 변화를 직면하고 있어, 기술 혁신을 통한 특허 경쟁력 확보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반영하여 특허청은 이차전지 분야를 우선심사 대상으로 지정('24.2월)하는 한편, 이차전지 전문심사관을 증원하고 전담 심사 조직을 신설('24.6월)하는 ‘이차전지 특허심사 패키지 지원체계’를 구축하였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이차전지 분야 연구개발 현황과 특허전략을 공유하고, 우선심사 제도 소개, 특허분쟁 사례 및 주요 판례 분석을 통해 기업의 특허 경쟁력 확보를 위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특허청 임영희 화학생명심사국장은 “이차전지는 미래 모빌리티의 핵심 요소이자 우리나라가 세계를 선도하는 국가첨단전략기술 중 하나”라면서 “이번 현장소통에서 논의된 사안들을 심사실무에 적극 반영하여 우리 기업들의 국제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담당 부서	화학생명심사국 유기화학심사과	책임자	과 장	좌승관 (042-481-5534)
		담당자	사무관	문영준 (042-481-5487)